

# 초·중학생의 SNS에서의 긍정적·부정적 행동 분석

이수정·연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 요약

SNS는 온라인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양방향 소통, 인맥관리, 정보 전달 등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로써 국내·외 SNS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그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SNS에 대한 연구가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중학생의 사용 실태와 SNS 사이버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학생들의 SNS 사용실태와 사용동기, SNS의 적극적 기능사용 정도, 의존경향성, SNS에 대한 인식과 SNS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행동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학년을 불문하고 개인정보도용 행위가 가장 많았으나, 낯선이와 접촉 행위는 학년이 오를수록 또는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SNS 의존경향성은 부정적 사이버행동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사이버행동 전반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학년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키워드 :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버행동, SNS 인식, SNS 의존경향성, SNS 사용동기

## Analyzing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SNS Behaviors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oojung Lee · Jeong-hwa Yeon

Dept. of Computer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SNS is a social networking service that removes the barrier between cyber spaces and the real world and helps people who have common interests to have a two-way communication, manage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hare informati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NS markets have attained a steady growth, and their growth is being more accelerated in recent days. However, studies on SNS have just examined adults, and it's required to research the use of SNS and cyber behaviors via SNS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the use of SNS, motivation of using SNS, the use of active SNS functions, SNS-dependent tendency and SNS awareness to cyber behaviors via SNS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s a result, regardless of gender and grade, stealing private information was the most frequent activity and the frequency of 'contacting strangers' activity increased most rapidly with the usage time and grade. SNS dependency turned out to be the most highly correlated with the negative cyber behavior. Moreover, the difference of gender was not significant to the overall negative cyber behavior, whereas that of grade was.

Keywords :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cyber behavior, SNS awareness, SNS-dependent tendency, motivation of using SNS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SZZ012031).

교신저자 : 이수정(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논문투고 : 2012-10-19

논문심사 : 2012-10-19

논문완료 : 2013-03-14

## 1. 서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는데, 가장 주목할 변화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 중심에서 미국의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Social Network Service(SNS)로 확대된 것이다.

오늘날 SNS들은 사용자들 간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공유를 지원함으로써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12],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온라인에서도 맺도록 지원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5]. 인터넷 소셜 정보 조사업체 소셜베이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세계 최대 SNS로 2011년 10월 가입자수가 773백만 명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트위터는 3억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혔다 [3]. 이처럼 국내·외 SNS 시장은 최근에 그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의 SNS 관련 연구결과를 연구대상자의 연령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7]에서 만6-60세의 SNS 사용률, 유형별 사용 현황, 사용용도 및 빈도를 조사하였으나 만6세-19세를 한 그룹으로 묶어 초,중학생들만의 사용현황 파악은 힘들다. 오윤경[8]의 SNS 중독 경향에 관한 연구 역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김민희는 20대에서 40대의 SNS 사용 행태를 질적으로 연구하였다[3]. 김연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참여율을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조사하였다[5]. 이처럼 SNS의 사용현황 및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20대 이상의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SNS가 더욱 성장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성인 중심이어서 초·중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시공을 초월한 커뮤니티를 필요로 하므로, SNS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사이버행동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행동을 긍정적과 부정적 사이버행동으로 분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SNS 사용시간, 사용동기, 적극적 기능 사용, SNS 의존경향성, SNS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 2. SNS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김연희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계층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동기를 조사하였는데 오락 추구동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발전, 정보습득, 간접경험, 친교의 순으로 드러났다[5]. O. Kwon과 Y. Wen[14]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사용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유용성, 인지된 격려라고 밝혔다. 인지된 격려란 SNS 이용시 사용된 “Good work!”, “Awesome!”, “You are great” 등의 반응을 말한다.

Benevenuto et al.[11]은 SNS의 사용 네비게이션과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가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정보를 열람하고, 세션의 하위 주제를 열람하거나 반복해서 찾는 활동을 반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실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사용자와 상호 작용한다고 밝혔다. Cheung et al.[13]은 19~23세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페이스북 사용동기로 ‘사회적 존재’ 동기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자기발전, 대인관계유지, 엔터테인먼트적 가치, 목적적 가치를 알아냈다.

박재형은 SNS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SNS 이용동기가 사이버범죄 행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였다[6].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3시간이 32.8%로 가장 많고, SNS 접속 빈도는 일주일에 1~2회로 주로 PC(86.9%)를 이용한다고 조사하였다. 일주일 평균 SNS 접속 횟수, SNS 형태에 따라 SNS 이용동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NS 접속 횟수가 많을수록 불법 복제와 주민번호 도용도 많았으며, 또한 SNS의 사회적 동기가 높고, 정보추구 동기는 낮을수록 인터넷 성매매 범죄 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를 오락추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음란물 범죄행위가 높아짐을 밝혔다.

오윤경은 SNS 사용여부에 따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들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8]. 연구 결과 SNS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사용하는 그룹의 사회적 지지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서적 격려, 정보적 조언, 구체적 원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또한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SNS 중독경향성과 SNS 사용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을 밝혔다.

최윤정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간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사회적 현존감과 사회적 동일시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적 현존감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10].

이상과 같이 과거에는 사용동기, 이용실태, 중독성, 내재적 감정 또는 사회성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초·중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미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사이버행동과 사이버 폭력 등의 부정적 사이버행동이 각종 요인(SNS 사용시간, 사용동기, 적극기능 사용, SNS 의존경향성, SNS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중학생의 SNS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아울러 SNS 사용시간, SNS 사용동기, SNS의 적극적 기능사용, SNS 의존경향성, SNS에 대한 인식과 SNS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행동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 3.1 연구 도구

<표 1>과 같이 설문지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SNS 사용실태, SNS 사용동기, SNS 사용기능, SNS의 의존경향성, SNS에 대한 인식, SNS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행동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영역 및 내용		문항수
일반적 사항	학년, 성별, 인터넷사용시간, 스마트폰의 유무, 스마트폰 사용요금	7
SNS 사용실태	사용하는 SNS 종류, 사용빈도, 과거 사용률, 사용시간	7
SNS 사용동기	교우관계, 학업, 지식, 정보, 취미, 즐거움, 리플 및 자료 등	8
SNS 사용기능	과거 알던 사람의 정보검색 글 읽기/쓰기, 사진/동영상 보기, 댓글, 사진, 영상 퍼나르기, 사진, 동영상 제작 및 게시, 일상 변화 알리기, 자료 공유	10
SNS 의존경향성	SNS의 사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5
SNS에 대한 인식	사람들과의 교류 희망 정도, SNS에 대한 사용 의지, SNS에서의 언어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11
SNS에서의 사이버행동	낯선이와 접촉, 정보 주고받기, 개인정보 도용, 집단따돌림, 비방욕설,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게임아이템 거래 등	13
SNS 사용의 좋은점	SNS 사용의 좋은점 기술하기	1
SNS에서 이어지는 학교폭력	SNS에서 이어지는 학교폭력 기술하기	1

그 중 ‘사용동기’ 항목은 Cheung의 2인과 차승봉의 연구내용과 설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9][13]. ‘사용기능’ 항목은 김선아의 설문지[4]와 Benevenuto et al.의 연구내용[11]을 참고하여 정보열람을 주로 하는 것을 소극적 사용기능으로 보고 질문 올리기, 댓글 달기, 동영상 게시하기 등을 적극적 기능으로 재구성하였다.

‘의존경향성’ 항목은 김민희[3]와 오윤경[8]의 선행 연구 ‘중독경향성’ 측정 문항을 재구성하였고, ‘SNS 인식’ 항목은 박재형[6]과 강유미[1]의 연구내용과 설문지를 바탕으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조사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사이버행동’ 항목 또한 동일 연구결과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3.2 연구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의 5-6학년 초등학생과 1-3학년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에 240부, 중학교에 480부로 총 72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576부가 회수되어 80%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5월 7~19일까지 약 2주간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과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설문항목들을 같은 요인으로 분류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개념을 독립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는지(내적일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내적 일관성 분석을 수행하여 Cronbach's alpha값에 근거하여 검정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에 대해 일반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에 따라 긍정 및 부정적 사이버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SNS의 사용시간에 따라 사이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SNS 사용동기, SNS의 적극적 기능 사용, SNS 의존경향성, SNS 인식 정도와 사이버행동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각 설문의 유사 항목들을 요약 분석하기 위해 SNS의 사용동기, SNS에 대한 인식, SNS에서의 사이버 행동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고유치(EigenValue)는 1이상, 요인적재량의 보수적 기준인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도출된 요인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각회전방법 중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사용해 도출하였다.

<표 2> 사용동기 요인분석

구 분	오락 추구	정보 추구	사회적	누적 설명력 (%)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803	.226	.102	36.447
정보추구 동기	.794	.113	.124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	.042	.908	.226	56.971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45	.689	-.019	
새로 올라온 글이나 자료가 궁금해서	.240	.716	.381	
이미 가입된 회원의 초대로	.155	.164	.887	73.212
교우관계 및 친교활동에 도움이 되어서	.124	.482	.710	
내가 올린 글, 자료의 반응이 궁금해서	.117	.077	.527	

<표 2>는 사용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오락추구 동기, 정보추구 동기, 사회적 동기의 3개 요인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 전체 요인의 설명력은 73%로 나타나 설명력은 검증되었다. SNS에 대한 인식요인과 사이버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우선, 인식요인은 긍정적과 부정적 인식 2개의 요인으로 도출하였고 전체 요인의 설명력은 68%로 설명력은 검증되었다. SNS에서의 사이버행동에 대하여는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 개념에 따라서 긍정적 사이버행동과 부정적 사이버행동(왕따 행동, 비방과 욕설, 낯선이와의 접촉, 영상의 부정 유포 및 음란물 접촉, 개인정보도용, 게임 아이템금전거래)로 요인을 명명하였다. 전체 요인의 설명력은 82%로서 설명력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개념을 많은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그 항목들에 대한 일관성이나 동질성 정도를 측정하는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Cronbach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사용동기, SNS의 적극적 기능 사용, 의존 경향성, SNS에 대한 인식, 사이버행동의 모두에서 0.74~0.86의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4.2 인구학적 특성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3>에 제시한다

로, 초등5년부터 중3학년까지 거의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도를 보면, 하루 1번 이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인터넷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 사용하였고(58.3%),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였다(32.5%). 인터넷의 주된 사용동기로는 SNS 사용이나 게임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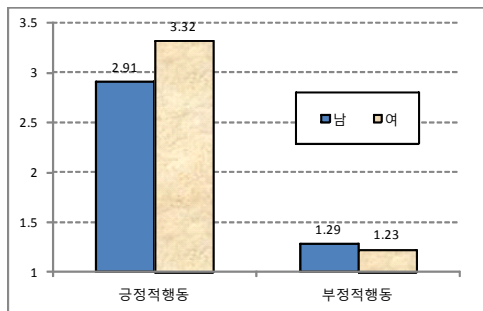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	퍼센트
학년	초등 5학년	75	16.7
	초등 6학년	81	18.1
	중 1학년	119	21.9
	중 2학년	97	19.3
	중 3학년	128	24.1
성별	남	229	47.4
	여	271	52.6
인터넷 사용 빈도	하루에 여러번	115	22.6
	하루1번정도	150	31
	1주 3~4회	78	15.6
	1주 1~2회	104	20.8
	월 1~3회	31	6.2
	월1회 미만	22	4.4

### 4.3 SNS 사이버행동에 대한 분석

#### 4.3.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이버행동 분석

긍정적, 부정적 사이버행동의 평균을 성별, 학년별로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남녀의 차이가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



부정적 행동 모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부정적 행동이 좀더 균일한 증가 그래프를 보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중학생의 경우 긍정적 행동 또한 초등생보다 높은데, 이는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등의 긍정적 활동을 중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과 <표 5>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긍정적 행동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가 학년보다 더 유의하고, 부정적 행동에 있어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또한 성별과 학년의 교호작용은 긍정적 행동에서만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성별 보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행동에 대한 주의 지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긍정적 사이버행동의 성별, 학년별 이원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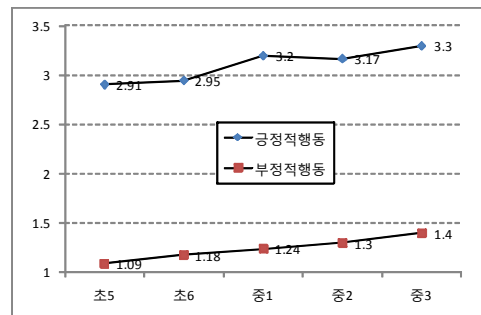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24.49	1	24.49	18.79***
학년	13.07	4	3.27	2.51*
학년*성별	24.90	4	6.23	4.78***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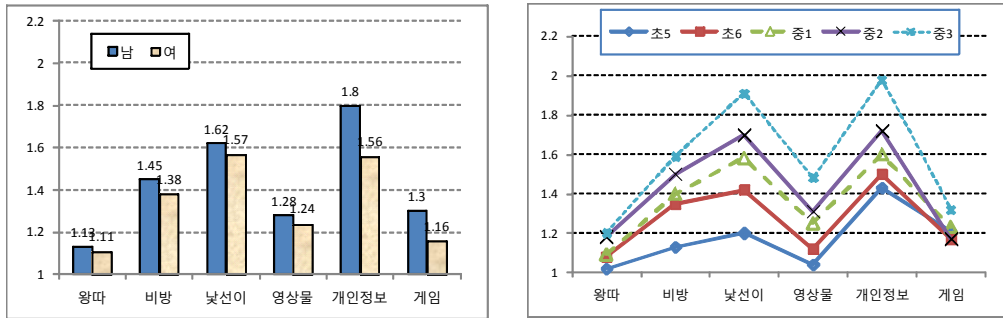
<표 5> 부정적 사이버행동의 성별, 학년별 이원변량분석 (F값)

	왕따 행동	비방 욕설	낯선인 와 접촉	영상물 부정 유포, 음란물	개인 정보 도용	게임 아이템 금전거래	평균
성별	.14	.43	.10	.04	5.65*	6.01*	1.17
학년	3.67**	6.22***	10.7***	9.93***	5.16***	.91	6.77***
학년*성별	.33	2.31	1.67	1.58	2.52*	.25	1.18

\*p<.05 \*\*p<.01 \*\*\*p<.001



(그림 1) 성별과 학년별 긍정적, 부정적 사이버행동 평균



(그림 2) 성별과 학년별 각 부정적 행동 요소의 평균

부정적 사이버행동의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성별의 차이보다 학년의 차이가 더욱 크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성별과 학년을 불문하고 대체로 개인정보도용이 가장 많고, 왕따행위가 가장 적게 하는 행위였다. 또한 낯선이 접촉은 두번째로 많이 하는 행위이고, 값의 범위가 0.71로서 개인정보도용의 범위인 0.55보다 커서, 학년이 오를수록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므로, 교사 및 학부모들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기 위해 <표 5>에서처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목할 결과는 게임아이템금전거래를 제외한 모든 부정적행동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p<.001$ )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 행동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4.3.2 사용시간과 사이버행동과의 관계

SNS 사용시간과 SNS 사이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림 3)과 같이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긍정적 행동 평균과 부정적 사이버행동은 모두 대략 증가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차이는 게임아이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 행동 요소, 부정적 행동 평균, 긍정적 행동 평균에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게임금전거래, 왕따, 영상물 부정사용 외에 나머지 부정적 요소들은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데, 특히, 낯선이 접촉은 최대와 최소의 격차범위가 1.2로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용시간이 많아지면 사이버행동

을 긍정적, 부정적 구분없이 많이 발휘함을 알 수 있어, 사용시간은 사이버행동의 유형을 구분하는 요인이 되기에는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 4.3.3 SNS 사용동기, 적극적 기능 사용, 의존경향성, 인식과 SNS 사이버행동과의 관계

<표 6>과 같이 SNS 사이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부정적 사이버 행동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정적 행동과의 상관관계 수치는 긍정적 행동과의 상관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이유는 <표 6>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용동기 등의 각 요인의 값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행동의 답변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존경향성은 모든 부정적 행동 요소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SNS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의 상관수치보다 커서, SNS에 대한 중독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부정적 인식과 의존경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상관이 높은 관계는 긍정적인 인식과 긍정적 사이버행동으로서, 다소 높은 0.664의 유의한 상관관계( $p<0.01$ )를 나타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초·중학생 576명을 대상으로 설문

<표 6> SNS 사용동기, 적극적 기능 사용, 의존경향성, 인식과 SNS 사이버행동과의 상관 관계

	긍정적 사이버행동	부정적 사이버행동						평균
		왕따행동	비방욕설	낯선이와 의 접촉	영상물 부정유포, 음란물	개인정보 도용	게임아이템 금전거래	
정보추구동기	.532**	.002	.173**	.194**	.099*	.044	.069	.122**
오락추구동기	.581**	.094*	.276**	.319**	.203**	.147**	.114**	.233**
사회적 동기	.561**	.114**	.246**	.271**	.188**	.047	.125**	.221**
SNS 적극적 기능 사용	.595**	.150**	.365**	.379**	.305**	.159**	.080	.296**
SNS 의존경향성	.380**	.256**	.439**	.417**	.395**	.237**	.142**	.416**
SNS 긍정적 인식	.664**	.127**	.350**	.388**	.251**	.147**	.079	.276**
SNS 부정적 인식	.337**	.247**	.337**	.223**	.276**	.150**	.061	.315**

\*p<.05 \*\*p<.01

조사를 실시하여 SNS 사용실태, 사용시간, 사용동기, SNS의 적극적 기능 사용, 의존경향성, SNS에 대한 인식과 SNS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사이버행동을 성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중학생이 초등생보다 긍정적, 부정적 행동을 모두 더 많이 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SNS 긍정적 행동은 많이 한 반면, 부정적 행동은 적게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행동에 있어서 성별차가 학년보다 더 유의하였고, 부정적 행동에 있어서는 성별보다 학년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SNS에서의 부적절한 유희를 쉽게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별과 학년을 불문하고 대체로 개인정보도용이 가장 많았고, 왕따행위가 가장 적게 하는 행위였다. 낯선이 접촉은 두번째로 많았으나, 학년이 오를수록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정보도용의 증가 이유는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셋째, SNS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긍정적, 부정적 사이버행동량의 차이는 매우 유의하였으며, 낯선이 접촉은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외로움과 우울이 높다는 오윤경[8]의 연구결과를 볼 때 외로움 해소를 위해 낯선 이 접촉이 z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모든 항목 중 SNS 의존경향성이 부정적 사이버행동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긍정적 인식은 긍정적 사이버행동과 다른 변인보다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초·중생들의 SNS 사이버행동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더욱 성장할 SNS환경에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SNS에서의 행동이 긍정적 방향이 되도록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유미 (2011).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 김명숙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3] 김민희 (2012).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SNS 사용자의 사용행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4] 김선아 (20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과 확산에 있어 개인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5] 김연희 (2011). 마이크로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킹 블로그 간 이용의도 차이에 대한 연구-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6] 박재형 (2010). SNS사용자의 사이버범죄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7]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2010년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  
 [8] 오윤경 (2012). SNS 중독성 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

- [9] 차승봉 (2011). 대학생의 Social Network Service (SNS) 참여와 학습성과 분석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델.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10] 최윤정 (2011). 모바일메신저 서비스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사용자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11] F. Benevenuto, T. Rodrigues, M. Cha, V. Almeida (2012). Characterizing user navigation and interactions in online social networks. *Information Sciences*, 195, 1-24.
- [12] D.M. Boyd, N.b. Ellison (2007). Social Network Sites :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 [13] C.M.K. Cheung, P.-Y. Chiu, M.K.O. Lee (2011). Online social networks: Why do students use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4, 1337-1343.
- [14] O. Kwon, Y. Wen (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2, 254-263.
- [15] Lampe, C., Ellison N, Steinfield, C. (2006). *A face(book) in the cyworld: Social searching vs. Social browsing*. Proc. the 20th Anniversary Conf.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 저 자 소 개



#### 이 수 정

1985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1990 Texas A&M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석사)  
1994 Texas A&M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박사)  
1994~1998 삼성전자 통신개발실 선임연구원  
1998~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웹마이닝, 웹정보필터링  
e-mail: sjlee@gin.ac.kr



#### 연 정 화

1991 인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2012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과 졸업  
2011~현재 인천마장초교 교사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스마트교육  
e-mail: jeong0545@hanmail.net